아 산 정 책 연 구 원

이슈브리프

No. 2026-02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국제질서 재편 전망

정구연

객원연구위원

2026-01-06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건은 미국이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한적 무력 사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날지 보여주는 단초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주권국가에 대한 정권 교체(regime change)나 전면적 군사개입이 아닌, 국제적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에 대한 형사사법 집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력 사용 역시 체포 작전을 수행하는 미측 작전 수행 인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과거 미국이 이라크 혹은 리비아에서 보여주었던 정권 교체 중심의 개입 모델과 분명히 구별된다. 이번 사건은 민주화나 국가 재건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개입이 아니라, 특정 범죄인의 제거 혹은 사법처리에 초점을 둔 개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외개입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비용과 위험이 큰 전면적 개입을 피하는 대신, 법적 정당성과 제한적 군사력 사용을 결합하여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 강대국 전략 경쟁의 공간적 확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20여년 간 중국, 러시아, 이란이 중남미 지역

에서 구축해온 가장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 중 하나였으며, 이들과의 관계는 베네수엘라에게 있어 제재 회피와 정권 생존의 핵심 기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외부 후원,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관계가 정권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셈이다. 주목할 점은, 마두로 체포 직후 미국이 이란, 콜롬비아, 쿠바 등 복수의 행위자들을 향해 유사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작전이 베네수엘라에 국한된 예외적 사건이라기보다 반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은 강대국 경쟁이 인도-태평양 전구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전구와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일반인의 관심으로부터는 다소 벗어난 서반구에서부터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했다. 이는 서반구(Western Hemisphere)에서의 안정과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및 유럽 전구에서의 영향력 유지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중국·러시아 간의 영향권 분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오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마두로 체포가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미국이 모든 전구(Theater)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이 스스로 억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역시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조정을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

체포 사건의 성격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응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지난 2003년 이라크전쟁 이후 형성되어온 '지상군 투입 금지(no boots on the ground)' 금기의 맥락 속에서 먼저 논의할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과 그 이후 정권 교체, 국가재건의 실패는 미국 내에서 지상군 중심 개입 정책에 대한 정치적 피로로 이어졌으며, 다시는 전면적 지상전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초당적 합의를 형성했다. 이후 미국의 군사력 사용은 드론, 공습, 특수작전, 그리고 동맹 및 현지 파트너 국가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은 과거 정권 교체 및 지도자 축출 사례와

비교해볼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에서의 사담 후세인 축출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과 전면전을 전제로 했고, 축출 이후 미국은 국가 재건과 치안 유지라는 막대한 책임을 장기간 부담했다. 그 결과 이라크전쟁은 군사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안정에 실패한 사례로 남아있다. 2011년 리비아에서 미국은 NATO와 함께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 붕괴를 지원했으나, 이후 질서관리에 실패하며 내전과 국가 붕괴를 초래했다. 이 두 사례는 지도자 제거 이후 질서 관리 비용이 개입의 궁극적 성패를 좌우한다는 교훈을 남겼고, 전면적 정권 교체 전략에 대한 미국 내 정치적 금기로 이어졌다.

한편 2011년 오사마 빈 라덴 제거를 위한 넵튠 스피어 작전(Operation Neptune Spear)의 경우, 빈 라덴이 은신해있던 파키스탄 영토 내에 소규모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그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파키스탄 정치체제나 국가질서 재편을 시도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전쟁이 아닌 대테러 법집행과 국가안보조치의 결합으로 설명한 것은 이러한 국내정치적 환경과 관련되어있다.

마두로 체포 사건은 이러한 점에서 빈 라덴 제거 작전과 일정 수준 유사점을 갖는다. 두 사례 모두 개인 중심의 표적화된 군사작전이었고, 임무 범위와 종료 조건도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는 마두로가 비국가 행위자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번 사례는 빈 라덴 제거 작전보다 훨씬 더 큰 국제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이를 전쟁 혹은 정권 교체가 아닌 사법 집행으로 프레이밍(framing)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입 범위와 사후 책임을 최소화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대외전략을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두 번째 쟁점은 체포 사건으로 인한 지지층의 이탈 혹은 반대 여론 부상의 여부이다. 먼저 네오콘(neoconservatism)의 귀환 논란을 들 수 있다. 마두로의 체포 및 지상군 투입은 미국 내에서 즉각적으로 네오콘 귀환 논란을 촉발했다. 네오콘 개입주의의 핵심은 군사력을 활용한 체제 전환과 민주화 강제, 그리고 그에 따른 장기적 국가재건이다. 반면 마두로 체포 사건에서 미국은 민주화나 체제 전환이라는 규범적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으며, 석유회사 투자와 경제회복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점만을 밝혔다. 즉 정치의제보다 석유와 재건에 필요한 자원 접근 보장이 핵심적인 목표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이념에 근거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강대국 경쟁을 위한 재원 마련과 서반구의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체포 사건을 MAGA 진영이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도 중요했다. 그러나 서반구의 불안정은 중국 및 러시아의 접근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북미 국가로의 대량 불법이민자를 양산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1] 바로 이런 이유로 MAGA 진영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MAGA 진영은 중동지역에서의 영원한 전쟁(forever war)을 종식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을 강력히 지지하기도 했다. 이번 마두로 체포 작전을 장기전 혹은 민주주의로의 체제 전환이 아니라고 프레이밍 한 배경에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MAGA 진영의 지지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레이건 성향의 공화당 지지자(Reaganite Republican) 역시 반미 독재자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이번 체포 사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탈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예측했을 것으로 보인다.[2]

먼로 독트린 혹은 선택적 축소?

마두로의 체포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고립주의 회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대외개입 방식의 조정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영원한 전쟁'을 비판했고, 지상군 투입에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전통적 고립주의와 유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마두로 체포와 그 전후 행보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을 포기하고 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보다 개입의 공간, 범위, 수단을 선택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 고립주의는 해외 개입 전반의 축소와 국제질서 관리에 대한 책임회피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하의 미국은 이러한 의미의 고립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미국은 여전히 군사력을 통해 특정 사안에 개입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마두로 체포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 즉 문제는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언제, 어느 곳을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먼로 독트린 역시 고립주의 교리가 아니다. 먼로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특정 전략 공간, 특히 서반구에 대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제한하고, 그 공간에서의 질서 관리 권한을 미국이 행사하겠다는 개입 원칙이다. 이는 중립이나 비개입 차원에서의 고립주의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즉 먼로 독트린의 핵심은 개입 회피가

아닌 개입의 범위 설정에 있다. 서반구 지역에 과거 유럽 열강의 개입을 배제하는 대신, 해당 지역에 대한 안보와 질서는 미국이 유지하겠다는 선별적 개입 전략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두로 체포를 먼로 독트린의 부활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고립주의와는 다르다.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의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어디서부터 질서를 먼저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두로 체포는 '선택적 축소(retrenchment without restraint)'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개입의 범위와 책임은 축소하되, 개입에 사용되는 수단과 해법(resolve)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전면전과 장기 점령은 피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적 무력사용과 직접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러한 선택적 축소는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 공간의 우선순위 재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최근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3] 미국이 전 세계 모든 전구에서 동등한 수준의 개입을 지속하기보다 자국 안보와 직접 연결되는 서반구의 안정 확보를 국가안보전략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반구에서의 불안정과 외부세력의 침투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다른 전구, 특히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의 강대국 경쟁 수행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그 배경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한적이지만 직접적인 개입으로서의 마두로 체포 사건은, 이러한 전략적 공간 우선순위 재조정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고 있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 이른바 'CRINK(각 국가들의 첫 글자를 딴 작명)'의 협력 강화라는 구조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4] CRINK는 공식 동맹이나 협의체는 아니지만 제재회피, 외교적 상호지원, 군사·기술 협력을 통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느슨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러한 협력의 서반구 거점국가였으며, 중국·러시아·이란과의 협력은 정권 생존의 핵심 기반이었다.

마두로 체포는 이러한 CRINK 서반구 확장에 대한 차단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는 전면적 강대국 충돌이나 장기 개입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외부 세력에게 서반구가 무제한적으로 개방된 전략 공간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 마두로 체포 이후 트

럼프 행정부는 이란, 콜롬비아, 쿠바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이번 체포 사건이 단발적 사건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른 전구에 위치한 CRINK 거점국가 혹은 거점지역에 대한 개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마두로 체포는 고립주의의 귀환이 아닌, 먼로 독트린의 선별적 공간 선택 논리가 비자제적 축소 전략과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마두로 체포 이후 국제질서 재편 전망

마두로 체포 사건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파급효과는 남미 지역질서, 글로벌 자원·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 전반에 걸쳐 확산될 전망이다.

우선,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명시적인 반미 군사동맹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미국의 일방적 제재, 군사개입, 체제전환 압박에 대한 집단적 외교적 저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의 핵심 플랫폼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이다. CELAC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역내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한 미국 중심 미주기구 밖의 지역 협의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콜롬비아가 CELAC 의장국을 수임하며 대외 파트너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다변화하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는데,[5] 다만 이는 반미 블록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자율성 확대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강경 반미 노선을 취한 국가들도 존재한다. 예컨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대미 견제 차원에서 활용한다. 그러나 브라질, 멕시코 등은 대미 협력은 유지하되, 제재, 군사개입, 체제 전환 압박에는 비판적이며 지역통합과 외교 다변화를 선호한다. 요컨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미 관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다수의 강대국 제휴관계가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마두로 체포를 기점으로 남미 지역 국가들의 강대국 제휴 상황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남미는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있었고,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외부 세력은 이틈을 활용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경제적·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이번 체포 작전을 통해 미국은 더 이상의 영향력 약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를 안정적

후방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정 임계점을 넘는 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자원 및 에너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마두로 체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듯 자원 및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수익과 생산량은 크게 저조한 상태였다. 이는 정치적 불안과 제재, 산업운영 부실,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7] 미국의 개입은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 이상의 지정학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자원 산업의 향후 관리 및 재건 계획을 언급한 것은, 단지 경제적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도전을 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시설로 돌리려는 움직임, 중국의 주요 수입국 지위 약화 가능성은 세계 에너지 지형의 지정학적 재구조화를 예고하고 있다.[8] 이러한 재편이 단기적 유가 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언급했듯 제재와 인프라 붕괴를 회복하는 데에는 장기적인 투자와 정치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에너지 문제가 단순한 경제적 이윤 획득에 그치지 않고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자원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중동·러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 자원도 공급망 재조정을 위한 경쟁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마두로 체포는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중요한 의문점을 남겼다. 미국은 이번 체포 사건을 국제법 위반이나 주권침해가 아닌, 국제범죄협의를 받는 개인에 대한 사법 집행으로 규정했다. 이는 규칙기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칙을 집행할 권한과 능력을 누가 보유하는가의 문제로 치환시키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규칙기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국제기구 및 국제제도가 미국의 이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9] 이번 체포 사건은 그러한 맥락에서 질서의 내용과 운용방식을 변화시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규칙의 비상식적 집행을 통해 질서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집행자(enforcer)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모순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한편으로 규칙기반 질서 자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규칙 보호가 자동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질서유지의 권한이 특정행위자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나머지 중견국과 약소국에게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신뢰를 거두게 할 수 있으며, 규칙기반 질서가 다시금 강대국의 질서로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할 것이다.

동북아 질서에 대한 함의와 우리의 대응

마두로 체포 사건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의 일시적 불안정으로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서반구를 핵심전략 공간이자 강대국 경쟁을 위한 후방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선택적 개입의 범위 내에서 지역 질서를 관리하려고 한다. 이는 규칙기반 질서의 집행 방식과 내용,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발간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며, 마두로의 체포 사건을 이해하는 배경을 제공한다.

서반구 지역은 비록 선택적이지만 직접적인 개입 대상으로 부상한 만큼,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 방식 역시 전략적 우선순위와 공동 이익 기반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이번 사건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유적 전망은 현실적 맥락을 간과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점령 시나리오를 실행하려면 우선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이 중국에게 우호적이며 미국과 동맹국의 제휴 상태가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비용과 편익, 내부 정치 동학 등 훨씬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유적 전망은 과도한 추론이며, 중국의 대만 침공은 훨씬 장기화된 미중 갈등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베네수엘라와 같은 단기간의 작전 성공이 불가능한 현안이기에 이러한 전망은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번 케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CRINK 국가들은 일시적으로 제휴 수준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마두로 체포 이후 외교당국 차원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반응은 CRINK 차원의 연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전략적 제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전략경쟁 차원에서 대미 견제라는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지만, 에너지와 전략 공간 확보 차원에서는 상호 견제와 비협력이 관찰된다. 이란과 북한은 글로벌 경제 및 외교적 차원에서 자국 우선 전략을 유지해왔다. 따라서 CRINK는 일시적으로 공통된 메시지와 대응을 보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쟁 차원에서의 제휴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현실성이 높지 않다. 현재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리차드 그레넬(Richard Grenell) 특임대사가 베네수엘라와 북한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조건의 두 국가에게 같은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두 국가 모두 독재 국가이고 지도자 간의 협상에 의한 문제해결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 있어 같은 카테고리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강대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범전구적 노력을 할 것이나, 매우 선별적인 우선순위를 보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미국은 모든 전구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억제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동맹국 스스로가 해당 전략공간에서 안정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역량 및 역할 분담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당 지역별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관리 능력도 중요하다. 미국의 제한적·선별적 개입이 강화될수록, 위기 발생 시 행동 조건과 작전 종료 조건을 명확히 설계하는 능력과 이에 대한 공조가 중요해질 것이다.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외부 충격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미국의 전략공간 우선순위를 고려한 통합억제구조 강화, 다층적 위기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다. 마두로 체포는 남미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논리와 구조는 남미 지역 밖에서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정구연 교수는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직 중이며, 미국 외교안보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안보아키텍쳐, 해양안보, 회색지대 분쟁, AI 군사적 활용 및 거버넌스 등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 현안을 주요 연구 주제로 한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동대학원 강사, 국립외교원 객원교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을 거쳤으며,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해군발전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1] NBC News, "Marco Rubio says Maduro's capture 'not a war against Venezuela': Full Interview" (January 4,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uMVxYx80v1k

[2] Matthew Kroenig, "Trump should oust Maduro," Foreign Policy (November 7, 2025). https://foreignpolicy.com/2025/11/07/trump-maduro-venezuela-democracy-intervention/

[3]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vember 2025).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5/12/2025-National-Security-Strategy.pdf

[4] CSIS, "CRINK in 10 Charts" (November 24, 2025) https://www.csis.org/analysis/crink-10-charts

[5] Xinhua News, "Lantin America must chose unity over isolation, says Colombian president" (April 10, 2025). https://english.news.cn/20250410/729d2a24606f421c83735bfd6438579d/c.html

[6] Abraham F. Lowenthal. "Disaggregating Latin America: Diverse Trajectories, Emerging Clusters and their Implications," Brookings (November 1, 2011). https://www.brookings.edu/articles/disaggregating-latin-america-diverse-trajectories-emerging-clusters-and-their-implications

[7] Mohammed Haddad, "Venezuela has the World's most oil: Why doesn't it earn more from export?" *Aljazeera* (September 4, 2025). https://www.aljazeera.com/news/2025/9/4/venezuela-has-the-worlds-most-oil-why-doesnt-it-earn-more-from-exports

[8] Ron Bousso, "US oil refiners win, Chinese rivals lose in Trump's Venezuela strike," *Reuter* (January 5, 2026).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us-oil-refiners-win-chinese-rivals-lose-trumps-venezuela-strike-2026-01-04/

[9] Matthew Kroenig, Dan Negrea, *We win, they lose: Republican Foreign Policy and the new Cold War* (New York: A Republic Book, 2024).